

# 롯데 창업자 신격호의 기업가 활동 -1950~60 년대의 한국 진출을 중심으로-

야나기마치 사토시 (게이오대학)

## 1. 들어가며

신격호(시게미츠 다케오)는 전후 일본에서 롯데를 창업, 1950~60 년대를 거쳐 종합제과업체라는 지위를 구축했다. 특히 롯데는 10 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간사이 지역의 껌 제조업체 하리스와의 치열한 껌 전쟁에서 승리해 1960 년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껌 제조업체로 자리매김했다.

한일국교정상화 시기에 많은 재일한국인기업가 1 세들은 모국, 한국 사업진출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신격호도 마찬가지로, 국교정상화 2 년 후 한국에 롯데제과를 설립해 한국 내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다른 재일한국인기업가들과 비교해보면 다소 늦은 진출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국 진출이 모국에 대한 강한 정이 기본이었다면 신격호의 한국 진출의 경우 어디까지나 신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신격호와 한국과의 연결고리는 1950 년대부터 이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업진출 결단을 내리기에는 한일 관계의 공식화에 더불어 인적 네트워크 등의 여러 환경정비가 불가결했다. 신격호가 중요시해온 인적 네트워크의 특징은 바로 첫째, 기업가면서도 양국 관계 형성에 깊이 관련되어있다는 점, 둘째, 이 인적 네트워크가 롯데의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관점에서 1960 년대 한국 진출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신격호의 기업가 활동의 독자성을 밝히고자 한다.

## 2. 신격호의 이면성

신격호의 기업가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양면성’에 주목해야 한다. 첫 째는 그의 이름 사용방식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재일한국인인 신격호의 사업 활동은 한일 양국에 걸쳐져 있었다.

그 당시 그는 때와 장소에 따라 ‘신격호’와 ‘시게미츠 다케오’라는 이름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었다. ‘시게미츠 다케오’로 활동할 때에는 일본인 실업가라는 측면이 있기에 일본 내 사업 확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롯데의 발전에 이용했다. 한편 ‘신격호’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한국인 실업가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사업 전개를 실시했다. 한국 롯데가 설립된 1967 년부터 신격호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와 같이 정재계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두 번째로 이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하던 상황이다. ‘시게미츠 다케오’이기도 하면서 ‘신격호’인 그는, 사업 면에서 발전하는 한편 정치적으로도 한일 양국이 합을 맞추던 시기에 정치 면에서도 스스로가 헌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 결과, 신격호의 귀중한 인간관계가 롯데의 경영 발전 뿐만 아니라 1960 년대 한일 관계의 재구축에서도 동일하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 3. 일본에서의 창업과 사업 전개

### 3.1 일본인 기업가 ‘시게미츠 다케오’

신격호는 1921 년 조선의 경상남도 울산 농가에서 5 남 5 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21 세가 된 1942 년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전문학교(현 와세다대학 이공학부)에서 커팅오일 기술 등을 수학했다. 그리고 배운 기술과 일본인 실업가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바탕으로 그는 시게미츠 다케오로서 1944 년 히카리특수화학연구소를 설립한다. 전시 중에는 뽕싹머리를 유지해야하지만 점차 머리카락을 기르기 시작한 남성들, 또는 일본인의 청결에 대한 관심을 전후에 꿰뚫어 본

시게미즈 다케오는 비누나 포마드를 제조, 판매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그 후 1947년에는 동 연구소에서 추잉껌 제조 판매를 시작했다. 이는 추잉껌을 씹으며 길을 걷는 미군에게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나아가 다음 해인 1948년 6월 28일, 시게미즈는 히카리특수화학연구소를 더욱 발전시켜 수증의 자본금 100만엔으로 주식회사 롯데를 설립했다.

추잉껌의 제조 및 판매는 성공했으며 관동의 껌 제조사 가운데 1등 제조사가 되며 일본 전국의 약 20%라는 점유율을 얻을 만큼 성장했다. 그 후 롯데는 점유율 약 40%를 자랑하는 관서의 하리스와 격렬한 껌 전쟁을 시작했다. 품질과 재료에 주력했고 독창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1960년 롯데는 약 10년에 걸친 하리스와의 껌 전쟁에서 승리했다. 시게미즈 다케오는 그 해 일본 추잉껌협회 회장에 취임, 일본을 대표하는 1등 껌 제조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껌 사업에 성공한 롯데는 연이어 초콜릿, 캔디, 아이스크림과 과자 분야에서 성장을 거듭하며 첫 외식사업, 롯데리아라는 패스트푸드 부문에 진출했다. 종합제과회사로서의 기반이 확립된 순간이다.

### 3.2 재일한국인 기업가 ‘신격호’

신격호가 시게미즈 다케오로 일본 롯데를 발전시킨 그 시기에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시기에 신격호는 3명의 인물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한국과의 커넥션을 갖게 되었다.

첫 번째 인물은 정건영(마치이 히사유키)다. 그는 1950년대 재일본대한체육회 중앙본부 회장을 지냈다. 1953년 정건영은 재일동포선수단이 독일에서 개최될 월드컵 예선전 출장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재일한국인기업가들을 중심으로 자금 모금을 실시했다. 이승만 대통령 방침에 따라 한국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가운데 거액의 기부금을 낸 사람 중 하나가 신격호였다. 정건영이 ‘최초로 찬성해준 사람은 시게미즈였다’고 말한 것처럼 당시 신격호는 재일한국인에 대해 적극 지원했다. 나아가 한국 롯데제과 창업 후인 1970년대에 접어들자 정건영은 신격호에게 당시 주일대사였던 이후락을 소개한다. 1970년대에는 긴자에서 세명이 자주 모이곤 했다고 한다.

두 번째 인물은 김유탉 주일대표부대사였다. 1958년 일본으로 파견된 김유탉은 신격호에게 한국 경제인 건물 설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격호는 롯데의 공장용 부지로 매입해 둔 토지 500평을 한국 정부에 기부했다. 이렇듯 신격호는 한국정부에 기여함으로써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을 수도 있으나, ‘신격호는 공산당이다’라는 터무니 없는 정보에 따라 토지 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구축은 실패로 끝났다.

세 번째 인물은 유창순이다. 후에 한국은행총재, 경제기획원장, 국무총리에 오른 유창순은 1950년대 당시 한국은행도쿄지점장으로 일본에 체류했다. 당시 해당 지점에 당시 돈으로 약 6,000만엔을 예탁한 게 신격호였다. 신격호는 이 일로 유창순과 가까워졌고 유창순을 롯데 공장에 초대했다. 유창순은 신격호의 성실한 인품에 호감을 느꼈고, 후에 한국 롯데제과회장이 되며 신격호와 함께 한국에서의 롯데 경영 발전에 힘썼다.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에서 사업을 일으킨 적이 없던 신격호에게 있어 유창순 같은 존재는 둘도 없는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신격호가 껌 사업을 통해 일본롯데를 확장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들과 연을 맺게 되며 한국과의 커넥션을 가지게 되었다. 롯데의 발전과 함께 신격호는 인적 네트워크를 한층 더 공고히 만들었다. 이 시기에 한일회담이 열렸다.

### 4. 국교정상화를 마주한 ‘신격호’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1953년부터 1965년까지 12년간 총 7차례 개최된 한일 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많은 인물들을 통해 협의하는 중에 특히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신격호였다.

특히 제6차 한일회담(1961년 10월 20일~1964년 12월 2일)중, 1962년 6월 및 동년 8월, 그리고 1963년 2월까지 약 3차례에 걸쳐 신격호가 한일 양국 정부 요인들의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고

알려져 있다.

1962년 6월 신격호는 당시 외무성아시아국장이었던 이세키 유지로와 국교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청구권 금액, 원활한 한일회담 등 매우 중요하며 보안성 높은 정보를 한국측에 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해진다.

1962년 8월, 신격호는 배의환 주일대표부 대사, 한일친화회 이사 오노신조, 그리고 동회사업무국장 후루타 쓰네지와 회식 자리에서 국교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마지막으로 이듬해인 1963년 2월에는 배의환 대사, 오노반보쿠 자민당 부총재, 아카기 무네노리 행정관리청장관, 료타로 아즈마 도교도지사, 후나다 나카 중의원 의원, 그리고 신격호 이렇게 6명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한 여러 조정이 이루어졌고 다음 회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한국 외교 문서에 기술된 것인데 여기서 보이는 신격호의 모습은 이미 보통의 기업가의 모습이 아닌 신격호만의 독창적인 인맥 형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신격호는 한일친화회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한일친목단체에 소속한 뒤 국교정상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섰다. 이후의 한국 사업 진출에도 큰 발판이 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신격호는 어떻게 시간을 들이면서 긴밀한 인맥관계를 구축, 활용이 가능했을까. 이는 신격호라는 기업가가 지닌 ‘신중하고 냉정한 계산 능력’에 있다.

신격호는 매우 신중하게 사업을 전개했다. 거기에는 1958년 롯데가 취득한 500평의 토지를 한국 정부에 기부했으나 끝내 실패로 돌아간 것과 관련이 있다. 신격호는 단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과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만들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신격호 스스로도 한국 정부와의 유대를 위해 민단, 한일 친목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를 통해 얻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한국 사업 진출의 발판이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1967년 신격호는 앞서 기술한 유창순을 회장으로 영입해 한국롯데제과를 설립한다. 신격호가 구상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은 이렇게 구체화되었고 롯데는 일본을 넘어 한국이라는 신시장 개척에 나서게 됐다. 그러나 신격호의 인적 네트워크가 반드시 신격호가 그린 사업 구상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초 그린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롯데를 유도해 나간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 5. 한국인 기업가 ‘신격호’

국교가 체결되면서 신격호의 한국 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신격호는 과자 부문이 아닌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중화학산업 사업 진출을 계획했다. 이는 본인이 처음 일본으로 건너간 뒤 와세다대학에서 커팅오일 등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한다.

그러나 그의 뜻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중화학산업이 아닌 중합제철소 건설을 요청했다. 모르는 분야는 쉽게 건드리지 않는다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던 신격호에게 있어 이 요청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이후락이 직접 부탁했고 또 그를 통해 소개 받은 재일교포 연구자 김철우(도쿄대학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신격호는 중합제철부문 진출을 결단한다. 중합제철소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 연간 약 3,000만엔, 미쓰비시상사와 제휴를 체결해 연간 100만톤 규모의 중합제철소 기본기술계획을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그렇게 한국에 중합제철소를 건설하려는 준비가 한창이 가운데, 한국정부가 ‘중합제철은 국영으로 진행한다’는 발표를 해 신격호의 중합제철소 건설 꿈은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중합제철소는 대한중석 사장이었던 박태준이 담당하게 됐고 1968년 포항제철소를 설립했다. 중합제철소 건설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신격호는 박태준의 제철업에 대한 열의가 더 앞섰기 때문이라 밝혔다. 김철우의 도쿄대 연구실에서 박태준을 처음 만난 신격호는 그의 열의와 인품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조사 자료를 건넸다. 이상과 같은 경위를 거쳐, 신격호는 1967년 종래의 사업

경험을 살리는 형태로, 한국 롯데 제과를 설립했다.

한국롯데제과 설립 3년 만인 1970년 11월, 서울시 불법식품특별관리과는 한국롯데제과에 휴업겸 제조 생산 정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한국롯데제과가 생산해 온 껌이, 제조 과정에서 인체에 영향을 주는 설탕가루가 검출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생산 정지 명령에 불복한 신격호는 정건영을 통해 알게 된 주일대사 이후락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자신이 사건을 해결하는 대신 신격호에게 한국에서 특급 호텔을 지어줄 것을 요청한다. 모르는 분야는 쉽게 손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신격호는 일단 이를 거부했지만 이후락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대통령의 요청대로 호텔 건립 건을 수락했다. 이후 9년의 세월을 지난 뒤 1979년 3월, 서울 중심부에 롯데 호텔을 개업했다.

## 6. 맺으며

이상 살펴본 것처럼, 신격호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한일 국교정상화 시기를 중심으로 한일 양측에서 급속한 사업 전개를 이뤄내 갔다.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향해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정치인은 물론 많은 인물들이 그것에 관련돼 있었다. 그 안에는 많은 재일한국인 기업가들이 있었으며 특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 신격호였다. 신격호는 한일 간 통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일 양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가 자신의 기업가 활동에 큰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인적 네트워크는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부정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었다. 정치와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정치계의 ‘막무가내’ 요청 탓에 의도치 않은 형태로 사업이 전개되었던 측면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신격호가 정치인들의 요청을 무작정 수용한 것은 아니다. 일단 요청을 받아들인 이상은 전력을 다해 사업상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성공 요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는 신격호의 냉정한 계산 능력과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끊임 없이 사고했기 때문이다.

많은 재일교포 기업인들처럼, 모국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열정과 더불어 항상 냉정하고 합리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간주하였다. 이것이 한일 양국에 있어 경영적 성공에 이르게 한, 신격호의 기업인 활동의 중요한 특징이자 다른 기업인과는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 主要参考文献

### <日本語>

浅野豊美, 吉澤文寿, 李東俊編(2018)『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 第Ⅲ期 1961年～1962年、第7巻、政治会談』、現代史料出版

『ロッテのあゆみ』(1965)など

『日韓経済協会 50年史』(2010)日韓経済協会

石丸聖剛(2016)「日韓経済協会設立の契機とその背景」、『中央大学政策文化総合研究所年報』第20号

朴一(2010)「在日コリアンによる初期本国投資の実態、その光と影 — 徐甲虎と辛格浩の事例研究」『経済研究 経済報告』第23号

盧聖鎬(1996)『グループ研究② ロッテグループ』,「日韓経済協会協会報」(298)

### <韓国語>

「제1차 정치회담, 제1차 정치회담 이후의 교섭, 롯데껌 회사 사장 신격호의 이세키 면담롯데껌 회사 사장 신격호의 이세키 면담 보고」, 1962.6.6, 문서번호 JW-0668 등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담, 제1차 정치 회담이후의 교섭」, 1962.6.14, 한일대(정) 제191호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1-3차, 1962.8.21.-29, 배 대사와 일한친화회 간부와의 면담내용 보

고」, 1962.8.13, 한일대(정) 제318호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22-32차, 일본요인과의 면담 보고」 문서번호 JW-02095

鄭普永 (1987)『롯데製菓二十年史』롯데製菓株式会社

『롯데 50년사』(2017) 롯데그룹

정순태(1998)『신격호의 비밀』지구촌

(번역책임자 : 박소윤)